

보도설명자료 (‘15.9.2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할당량 못 채운 신재생에너지’ 과징금 1900억
(‘15.9.25. 머니투데이)

1. 기사내용

- 한국전력 6개 발전자회의 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불이행량에 따른 과징금 추정액은 1,900억원에 달함
 - ‘15년 발전 6사 RPS 의무량에서 자체건설 계획물량을 제외한 REC 부족분은 502만8971REC지만, 8월기준 국가와 민간이 보유한 304만4556REC를 모두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불이행량은 198만4415REC
 - 동 불이행량과 지난해 REC 과징금 기준가격 9만4500원을 곱하면 과징금 추정액은 1875억으로 예상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‘15년 발전 6사 RPS의무량(의무비율 3%)은 1,087만 REC이나 시장내에는 최소 1,183만 REC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
 - * 시장내 물량구성은 ① 발전사 자체건설을 통해 541만 REC, ② 민간 발전사업자의 공급물량 477만 REC, ③ 국가 REC물량은 165만 REC (민간 및 국가 REC 물량은 ‘15.8월 현재 발급량 기준으로 향후 지속 늘어날 예정)
 - 향후 발급될 물량을 감안하면 국가REC를 제외하더라도 시장내 REC공급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

□ ‘15년도 발전사 의무량 대비 시장내 REC 공급량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,

- RPS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소규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

※ 관련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장 노건기 (044-203-5160)
박병기 사무관 (044-203-5172)